



제 69 호 2017 년 1 월 21 일

미 해군 신형구축함 ' Zumwalt '함이 주는 의미와 안보과제 - 볼티모어 취역식 현장에서



美 해군사관학교
교관교수
임 경 한

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힘(power)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. 그 힘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군사력은 해군이다.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바다에서 힘을 현시함으로써 국가의 강력함을 증명해 보였다.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. 오늘날 미 해군은 최소한 항공모함 4척·잠수함 30여 척 등 언제든지 세계 어느 바다에서라도 당장 군사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. 그 힘에 기초하여 미 해군은 미국의 국가 가치와 이념인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리더십 확장을 구현하고, 전 세계 다른 나라 해군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독립을 성취하기 1년 전인 1775년 10월 13일 창설된 미 해군(해병대는 11월 10일 창설)은 24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. 미 해군 임무에 대한 공식 규정은 '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,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, 그리고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유지·훈련·정비'하는 것이다.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 해군은 항상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구비해왔다.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성공적인 세계일주 항해를 마친 거대 전함 16척의 백색함대,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항공모함, 냉전 시기 소련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보장할 수 있었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.

변혁의 시대인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맞이한 미 해군은 과연 어떤 무기체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까? 필자는 이 질문을 품고 지난해 10월 볼티모어에서 치러진 현존 세계 최신편함정인 미 해군 Zumwalt함(DDG-1000)의 취역식에 직접 참석했다. 눈앞에 마주한 Zumwalt함의 멋스러움과 웅장함은 글로 전달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. 솔직히 말하면 위압감이 들었다. Zumwalt함의 소개책자 표지를 장식한 함정의 모토(motto)를 보는 순간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. 라틴어로 'Pax Propter Vim' — 즉, '힘을 통한 평화'(Peace Through Power)를 의미했다.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미 해군의 의지가 그대로 묻어났다. 다시 Zumwalt함을 올려다보니, 그 힘의 위력이 압도적인 기운으로 전달되어 왔다. 특히 혁신(innovation)의



대명사로 불리는 줌왈트(Zumwalt) 제독(1920-2000)의 이름을 딴 줌왈트함의 혁신적인 외형과 무기체계를 보면서 추억식에 참가한 미국 시민의 눈에는 자부심이,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 우방국 군 관계자들의 눈에는 부러움이 그대로 묻어났다.

줌왈트함을 포함한 DDG-1000급의 신형 구축함은 미 해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획득을 추진한 결과물이다. 많은 이들은 차세대 함정으로 불리는 DDG-1000급의 건조비용에서 한 번, 그리고 이 함정의 첨단 능력에서 다시 한 번 놀란다. 통상적으로 이 함정은 우리 돈 약 5조원(44억불) 정도의 건조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실제로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총 건조비용이 약 8.5조원(75억불)에 달한다. 또한 DDG-1000급 함정은 전력통합시스템(IPS: Integrated Power System)을 통한 혁신적인 함정 동력 관리, 유도식 로켓탄 발사가 가능한 155mm 함포(향후 전자기 레일건—Electromagnetic Railgun 탑재 예정), 그리고 함정의 탐지 가능성을 5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주는 스텔스 능력을 갖춰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.

그러나 이러한 놀라운만한 사양에도 불구하고 DDG-1000급 함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. 사실 DDG-1000급 함정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. 이 사업은 최초 21세기를 위한 신개념의 구축함을 건설한다는 의미인 'DD-21'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. 이후 2001년 'DD(X)'로 명명되었다가 2006년에 'DDG-1000' 계획으로 최종 변경되었다. 이 과정에서 건조비용 증가에 따라 최초 계획했던 32척에 대비하여 최종 3척만 건조할 수 있었다. 이에 따라 3척의 DDG-1000급 함정만으로 과연 미 해군이 구상해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. 다른 문제도 많다. 예를 들면, DDG-1000급 함정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기 레일건 또한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, 유도식 로켓탄을 대신할 만큼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. 문제는 단기간에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.

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-태평양 해역은 아시아 '재균형'(rebalancing)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해역이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추억하게 될 후속함 마이클 몬서(USS *Michael Monsoon*)와 린든 B 존슨(USS *Lyndon B Johnson*)을 포함한 3척의 DDG-1000급 함정 모두 전력화 이후 태평양함대 소속으로 배치될 예정이다. 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(Harry Harris) 제독은 줌왈트함 추억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-태평양 해역에서 줌왈트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. 미 해군이 중국의 해양팽창으로 인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갈등 및 북한의 핵 위협으로 시작된 동북아 안보 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. 앞으로 미 해군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. 과연 해군 무기체계 혁신의 상징인 DDG-



1000급 차세대 구축함이 미 해군의 기대에 부합하여 아시아-태평양 해역에서 힘의 차이를 결정짓는 '게임 체인저'(game changer)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. 해군관계자를 포함한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의 안보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다.

약력

임경한 교수(seaman53@naver.com)는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로서 전략론·해양전략·주변국 군사전략·국제정치와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. 현재 美 해사 교환교수로 근무하면서 '국제관계의 이해'를 강의하고 있다.

국내외 참고자료

- [David B. Larter, "Donald Trump wants to start the biggest Navy build-up in decades", *Navy Times*, Nov. 15, 2016](#)
- [Adm. Harry Harris, "USS Zumwalt \(DDG 1000\) Commissioning Ceremony Baltimore, MD", *USPACOM \(U.S.Pacific Command\)*, Oct. 15, 2016](#)
- [Ronald O'Rourke, "Navy DDG-51 and DDG-1000 Destroyer Programs: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", *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*, May 20, 2016](#)

알림

-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
- KIMS Periscope 는 매월 1 일, 11 일, 21 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- KIMS Periscope 는 안보,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. 여러분의 기고를 환영합니다.

[웹페이지보기](#)